

데이빗 혹셋 교수와의 대화: 문학과 해석, '반지의 교제'를 중심으로

데이빗 혹셋 교수 / 대담 이영근 교수

아래 내용은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데이빗 혹셋(David Hogsette) 교수가 강의한 내용과 이영근(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수가 그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데이빗 혹셋 교수는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그로우브 시에 소재한 그로우브 시티 대학 영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글쓰기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그로우브 시티 대학은 기독교 진리와 그리스도 중심의 학식과 폭넓은 세계관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시키는 목적을 지닌 인문학 중심 대학이다.) 혹셋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았고, 많은 곳을 방문할 기회도 가졌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학사(1990), 석사(1992), 박사학위(1996)를 마쳤고 연구 관심 분야는 19세기 영문학 (로망스 시인), 미국 남북전쟁 이전 문학, 비평이론, 기술을 이용한 학습 등이다. 취미로 동양무술(가라데)을 수련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인 아내와 함께 그로우브 시티에서 살고 있다.

이영근 교수(이하 이영근) | 무슨 일로 한국을 방문하였나?

2017년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개설한 2017년 여름학기 교양강좌 강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였다. 한국 방문은 이번으로 두 번째다. 2012년 여름에도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초청받아 '문학 해석과 성경 속 비유 언어'를 주제로 수업을 가르쳤고 J.R.R. 톨킨에 관한 공개강의를 한 바 있다.

이영근 | 그렇다면 이번 강의의 주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달라.

두 과목을 가르쳤는데, 2주간에 걸쳐 월~목, 오전(10-12:30)과 오후(14-16:30)에 각각 문학과 글쓰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상은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청강생들이었다. 오전 강의의 주제는 '문학과 해석 및 문학비평: J.R.R. 톨킨과 C.S. 루이스의 작품을 중심으로'였고 오후는 '글쓰기와 비판적 사고: 학술에 세이와 목회사역을 중심으로'였다. 문학 수업을 위해서 특별히 첫주에는 톨킨의 작품 "반지의 제왕" 중 "반지의 교제('반지원정대'로 알려짐)"를 학생들이 미리 읽고 수

업에서 논의와 토론을 벌였고, 둘째 주에는 루이스의 “침묵의 행성 밖에서”를 읽고 토론하였다. 마지막 날인 7월6일(목) 저녁 7:30에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제목: “도피, 은혜, 그리고 믿음의 논리: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지속적인 관련성”)를 진행했다.

이영근 | 문학강좌 중 ‘해석’에 관련된 주제가 있었는데 신학생들에게 해석 능력이 왜 중요한가?

해석이란 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데 비평가들과 문학 이론가들은 종종 해석의 산물을 의미와 의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저자가 문맥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의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위해서는 신학-역사적인 것이든 현대의 것이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해



석이다. 즉, 성경을 주의 깊게 해석하되 과거 성경학자들이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신학 공부를 위해서는 해석 능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해석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설교 중에 문학과 문화를 해석하여 예시를 드는 데는 해석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성도들에게 대중문화에 대해 잘 가르치기 위해서도 좋은 해석기술이 필요하다. 문화를 바르게 해석하고 관여하는 모범을 보이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대중문화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며, 오히려 올바른 신학과 성경적 관점에서 문화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나아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생각이나 사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통찰하며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신학 공부와 목회 사역 양면에서 좋은 해석 능력은 요긴하다.

이영근 | 해석 능력이 어떻게 신학생들에게 공부 뿐 아니라 미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석기술을 적용할 참고서적으로 톨킨의 “반지의 제왕: 반지의 교제”를 선택하였는데, 그것은 판타지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책이 아닌가. 특별히 판타지를 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판타지는 문학 비평계에서 저급한 문학 형태로 무시되거나 평가절하 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민속이나 동화 이야기, 또는 아동문학이나 대중적인 오락 또는 상업 문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뛰어난 당대 작가들 중에도 판타지 형식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토니 모리슨, 글로리아 네일러, 마가렛 앳우드, 레슬리 실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즈가 그렇다.

어살라르그앵이 “판타지는 모든 픽션의 할머니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판타지의 뿌리가 고대 신화이며 고전 서사시와 중세 로망스 문학에서 판타지 이야기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판타지는 결코 새로운 형태의 상업화한 저급 문학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현실”을 넘어서는 내러티브로서 우리가 역사에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한 이후로 인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판타지는 현실의 평범함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화적 또는 역사적 상대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진리와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것을 조사하고, 표현하고, 대표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판타지는 모든 문화와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보편적 호소력과 장구함을 지닌다. 물론 특정한 문화적 특색을 띠 수도 있겠지만 판타지는 여전히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독자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매일의 생활 너머에 있는 경이를 맛보며 때로는 일상의 평이함 그 밑에 깔려 있는 마법과 놀라움을 경험하도록 부추김을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 독자에게 이상향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줌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을 새롭게 건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판타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톨킨은 판타지가 우리에게 회복과 탈출과 위안을 준다고 하였다. 판타지 속에 나타난 초월적 비전은 현대의 회의주의 속에서 실종된 가치와 도덕과 진리를 드러내어, 정도에서 벗어나 고통으로 가득차고 무정한 이 세상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영근 | 판타지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다. 그렇다면 판타지 -특별히 톨킨의 “반지의 교제”-가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궁금하다.

톨킨은 잘 알려진바대로 중세문학을 전공한 영문학 교수이자 여러 언어에 능통한 문헌학자이다. 그런 그가 “반지의 제왕”을 쓰면서 중간계라는 주 세계와 구별되는 2차 세계를 창조하고 가상의 언어들을 만들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상의 역사를 그린 (그런 점에서 톨킨을 “부 창조자 Subcreator”라고 부른다)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책에는 장소와 지역에 대한 상세한 묘사, 혈통과 가문들과 그들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서술, 문화와 그 역사들, 그리고 그 문화들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풍성한 기술이 가득 차 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허구임엔 틀림없지만 톨킨은 판타지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실제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처럼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1부에 해당하는 “반지의 교제”의 핵심 주제는 우정이다. 제목부터가 그렇다. 여기서 교제는 우정과 관련 있는 말이다. 톨킨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성경적 개념인 코이노니아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게 교제란 영적인 요소였고 그런 점이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교제는 단순히 친근한 우정 이상의 것으로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에 대한 헌신에서도 동일한 사람들 간의 긴밀한 영적 유대이다. 바로 이런 점을 책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초반부에 악의 위협에 맞서 호빗들이 뭉치는 장면과 후반부에서 중간계의 다른 종족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악을 패퇴시키는 더 높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톨킨은 C. 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 The Four Love”에서 정의한 네 가지 사랑 중 하나인 필리아(친구 간 애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친구의 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것, 친구를 섬기는 것,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친구를 위해 거기 있어 주는 것으로 보았다. 친구 간 사랑으로 연합되는 이러한 교제는 엘론드 회의에 참석한 여러 종족들이 용

서의 필요성을 배우고 지난 불만들을 불식시키며 악의 위협에 맞서 하나로 뭉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들 우정의 특징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고, 각자가 중간계의 유익이라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데서 이 우정이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친구 사랑의 특징을 또 다른 단계의 사랑인 아가페적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책속 등장인물들을 통해서도 성경의 인물이나 가치, 혹은 교훈들을 연상시키는 면들이 있다. 예를 들면, 톰 밤바달은 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묘사되는데, 호빗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다른 어떤 창조물들보다 오래되었고 고대의 과거사를 알고 있으며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닌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정작 톨킨은 그런 점을 부인한다. 책속에서 그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며 순전한 기쁨과 깊은 영적 즐거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며, 프로도에게 앞으로 간달프에게 일어날 일을 이상으로 보여주고 호빗들의 원정 여행에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한편 교제에 동참한 이들에게 다른 이의 은혜와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다른 이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반지의 교제”에서 보여주는 선과 악의 개념과 섭리이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확인시켜준다. 우리 모두가 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악이 있다면 절대적 의미에서의 선 또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선과 악이 있다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잣대, 곧 도덕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런 도덕법이 있다면 도덕법을 내신 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도덕법은 마음과 합리적 사고를 지닌 도덕적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생각하지 못하는 비도덕적 자연의 힘은 도덕법을 낼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도덕법 제정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도덕법 제정자가 하나님이다. 바로 이 존재를 무신론자들이 세상에 너무 악이 많아서 ... 하는 주장을 펴면서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우주에는 목적이 있고 자연에는 설계(design)가 있기에 우리가 그 설계를 연구하면 도덕성, 곧 합당한 행위를 분별해 낼 수가 있다. 이것이 자연법 이론이다. 자연적 설계에 따라 작동하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고 자연적 설계를 어기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다. 폭력을 뜻하는 영어 낱말 “violence”는 당위를 범한다(violate)는 뜻임을 기억하라 - 어떤 것들의 올바른 상태를 위반하기 전에 먼저 설계에 의해 당위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현실에 절대적인 당위, 즉 사물들이 객관적인 의미에서 “어떠야만 한다”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이나 “악”을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연법 외에도 하나님은 도덕법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앞에서 언급한 논리로 선은 악에 앞서 존재한다. 둘 사이에 영원한 균형이란 없다. (톨킨은 도덕적 이원론자가 아니었다.) 예컨대, 병(disease)이 있기 전에 편안함(ease) 즉 건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병은 건강이 결핍한 상태), 가난이 있기 전에 부가 있어야 하며 (가난은 부의 결핍 상태), 약함이 있기 전에 강함이 있어야 한다 (약함은 강함의 결핍 상태). 더위와 추위를 생각해 보라. 어떤 것에 우리가 추위를 더할 수는 없다. 오직 열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에 악을 더할 수는 없다. 악은 그 자체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은 선의 결핍일 뿐이다. 악은 선이 먼저 존재한다는 논리를 갖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선은 도덕법

에 해당되고 자연법에 따라 작동하는 것인 반면 악은 도덕법에 반하거나 자연법을 거슬러 작동하는 것이다.

톨킨은 기독교 유신론자로서 이러한 선과 악의 정의에 따라 작품을 썼는데 “반지의 제왕”에서도 동일한 우주론을 본다. 그 안에 에루(Eru), 곧 The One 혹은 일루바타르라 부르는 선하고 영원한 하나님 같은 인물이 있는데 소설 속에는 선과 악의 원리와 예들이 넘쳐난다. 선은 먼저 존재하고 현실을 결정하며 조화와 일치와 평화를 가져온다. 우정과 교제는 사랑과 용서에 바탕을 둔다. 선을 보여주는 예들은 샤이어, 톰 밤바달과 골드베리 (타락 전 에텐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 조화로운 결혼, 죄와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리벤델과 엘론드의 집, 엘론드 회의와 교제/동맹의 형성, 회의에서 프로도와 호빗들이 보여준 희생적인 행동 등. 반면 악은 영원하지도 미리 존재하지도 않고 앞서 존재하는 선에 대한 반역으로서 존재하게 되었고 선의 결핍으로 볼 수 있다. 부조화, 불일치, 전쟁 또는 평화에 대한 침략을 가져온다. 결국 이러한 합리적인 세계관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관적이거나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 도덕법 제정자에게서 오는 도덕법으로 부여된다. 도덕법이야말로 우리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영원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반지의 제왕” 속에는 섭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앞서 톨킨이 기독교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글을 썼다고 했는데 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다스리며,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자기 영광과 목적을 위해, 또한 그가 지은 사람의 선을 위해 쓰신다. (롬 8:28)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프로도가 결국 반지를 갖게끔 되어 있고 일루바타르는 모든 것들을 통해 일을 하여 결국 반지를 파괴하고 악에게 승리를 거둔다. 빌보의 동정심이 골룸을 구하고 골룸은 마지막에 반지를 파괴한다. 밤바달과 프로도의 “우연한 만남”은 섭리적



이다. 사우론과 사루만은 교만과 자만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이들 등장인물들은 제각각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에루, 곧 일루바타르의 더 큰 주권적인 목적을 따라 하게 된다.

이영근 | 간단한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긴 답변 속에 깊고 중요한 원리와 개념들이 소개 되었다. 감사하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 2주간 강좌에 참석한 신학생들에게 나아가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고 싶은가?

2주간 수업을 함께 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한 숙소와 신학교를 매일 오가면서 신학생들과 많은 교제를 즐겁게 나눌 수 있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순전한 가슴을 소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명랑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모습을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

회 현장에 가서도 부디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 만나 본 몇 한국인 목사들의 모습은 매우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웃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해주었다.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대중문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문학 작품을 어릴 적부터라도 읽되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가령 C. S. 루이스 같은 작가들의 책을 읽고, 서서히 그렇지 않은 책들도 읽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학과 문화적 대상들을 접근하고 관여하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것들도 신자들의 선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대담자 | 이영근

미국 하와이대학교 박사. 현재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다.